

# 000000 언론보도 성과보고

1. 2017~2019 3개년 보도자료 배포지수
2. 2019년 1~11월 홍보성과보고

2019.12.09



빅데이터 분석팀

## 1. 보도자료 배포지수 개요

### 1) 보도자료 배포 지수(PRDI; Press Release Distribution Index)

- 일반적으로 단순히 보도된 횟수만을 기준으로 ‘보도자료의 기사화’ 성과를 파악한 것과는 달리, ‘보도자료의 효과’ 라는 측면에서 지수를 제공
- 예를 들어 유료 구독자가 70만 이상인 조선일보에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과 유료 구독자가 5만명도 안 되는 지역 신문에서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의 성과는 달리 측정되어야 함
- 이에 따라서 각 언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, 실제 보도자료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측정하여 지수화 하였음

$$\begin{aligned} \text{보도자료 도달(A)} &= \text{일별 해당 보도자료의 기사화 빈도} \times \text{매체별 가중치(독자수 기반)} \\ \text{보도자료 일치율(B)} &= \text{해당 보도자료의 텍스트 내용 일치도(기계적 측정)} \\ \text{PRDI} &= A \times B \end{aligned}$$

### 2) 언론사별 가중치

- 언론사별 가중치는 각 매체의 유료 독자수를 기준으로 크게 6개의 그룹을 나누어 부여하였음
- 이는 일반적인 매체 영향력과 독자수, 시청자수를 감안한 것임

<표 1> 매체별 보도자료 도달 가중치

매체	지상파 방송	메이저 3사 (조선, 중앙, 동아)	케이블 종편 채널	뉴스전문채널 /중견 중앙 일간지/ 매일경제	소규모 중앙일간지/ 소규모 케이블/소규모 경제지	특수지/ 지역지	인터넷 매체
가중치	2.0	1.5	1.2	1.0	0.8	0.5	0.3

- 보도자료 배포지수의 기본값은 중규모 중앙언론사로 PRDI값 1의 수치는 약 10만 명 독자의 열독으로 해석할 수 있음

## 2. 2017~2019 보도자료 배포지수 통계

- 연간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100건 이상으로 평균 3~4일에 한 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있으며, 평균 배포지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

<표 2> 연도별 보도자료 건수 및 증가추이

연도	2017	2018	2019
건수	103건	134건	151건
연평균 PRDI	5.5	5.2	6.3
누적 PRDI	566.5	696.8(23%▲)	951.3(36.4%▲)

- 전반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다룬 보도자료는 대체로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임
- 또한 한국000000의 인사 결과도 기사화되는 비율이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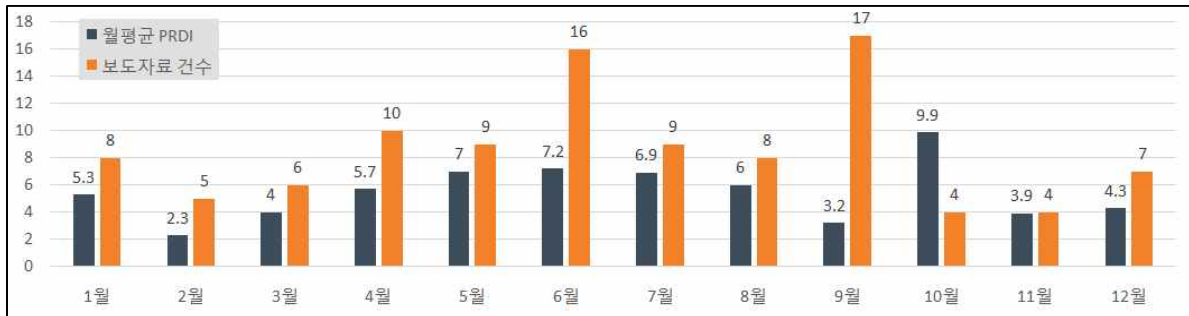
<표 3> 언론 영향력 상위 보도자료

연도	날짜	보도자료 제목	PRDI
2017년	2017-06-07	*** ** * ***** ** ** **	34.1
	2017-10-31	*** ** * ***** ** ** **	26.9
	2017-08-21	*** ** * ***** ** ** **	19.3
	2017-04-17	*** ** * ***** ** ** **	17.8
	2017-01-04	*** ** * ***** ** ** **	17.7
2018년	2018-08-20	*** ** * ***** ** ** **	34.6
	2018-12-26	*** ** * ***** ** ** **	31.0
	2018-07-18	*** ** * ***** ** ** **	25.2
	2018-01-17	*** ** * ***** ** ** **	22.9
	2018-12-03	*** ** * ***** ** ** **	20.1
2019년	2019-03-06	*** ** * ***** ** ** **	27.0
	2019-06-27	*** ** * ***** ** ** **	26.1
	2019-06-07	*** ** * ***** ** ** **	25.1
	2019-07-08	*** ** * ***** ** ** **	21.0
	2019-06-20	*** ** * ***** ** ** **	19.0

### 3. 2017년 보도자료 배포지수

#### 1) 월별 통계

[그림 1] 2017년 보도자료 배포지수 월별 통계



○ 대언론 홍보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달은 16건의 보도를 하면서 높은 수준의 PRDI 값이 나타난 6월로, 월간 누적값이 115.2로 나타났음

- 이 시기에는 ‘어려운 법률서비스, 이제 편하게 이용하세요!’의 가장 높은 PRDI값을 가진 보도자료가 기사화된 시기임
- 이는 OOOOOO이 교통사고 피해자 법률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MOU를 맺은 내용
- 해당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만한 내용이었어서,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끌었으며, 또한 \*\*\*\*\*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측면이 있음

○ 개별 보도자료 배포지수가 가장 높았던 달은 10월로, 4건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에도 PRDI의 평균은 높았음

- 이는 ‘\*\* \*\*\*\*\* \*\*\*\*’의 보도자료가 주요 매체에 다수 보도되었기 때문임
- 이 이슈는 언론의 사회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이슈로 정보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음

#### 2) 기사화율 낮은 보도자료

<표 4> 2017년 기사화율 저조 보도자료

날짜	보도자료 제목
2017-01-13	OOOOOO, *** ** * ***** ***** **
2017-04-17	*** ** * ***** ***** **
2017-05-16	*** ** * ***** ***** **
2017-06-23	*** ** * ***** ***** 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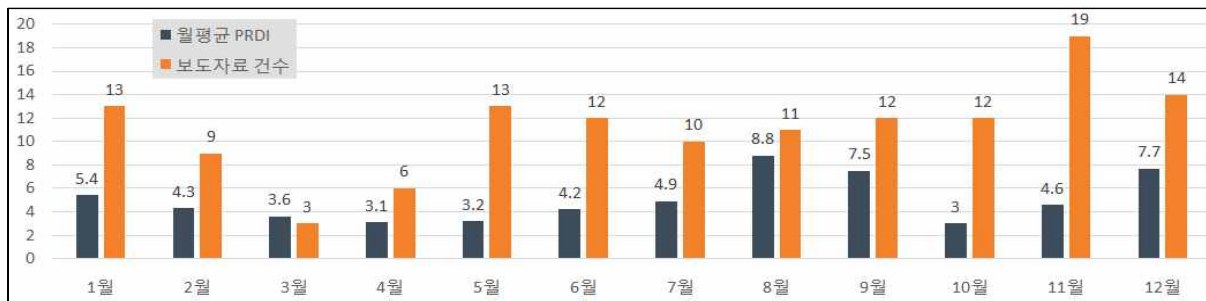
2017-07-07	*** ** * * ***** ***** **
2017-07-17	*** ** * ***** ***** ** **
2017-09-05	*** ** * ***** ***** **
2017-09-26	*** ** * * * ***** ***** *****
2017-09-29	*** ** * ***** ***** ***** **
2017-09-29	*** ** * ***** ***** ***** *****
2017-10-12	*** ** * ***** ***** ***** **

- 2017년의 경우 명절을 중심으로 한 홍보기사나 봉사 등의 대외 활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음
  - 조직의 사회책임활동 및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 기존 단순 알림의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 있음
  - 이벤트의 성격을 더 강화하거나, 사회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개성있는 이벤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
- 조직의 역사 및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 정보 전달에 대한 다양한 PR 전략이 구축되어야 함
  - ‘\*\*\*\*\*의 30년을 공개합니다~’ 와 같은 보도자료의 경우, 단순한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방송 콘텐츠 등의 제작비 지원을 통해 더욱 인지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
  -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,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을 제안

#### 4. 2018년 보도자료 배포지수

##### 1) 월별 통계

[그림 2] 2018년 보도자료 배포지수 월별 통계



- 대언론 홍보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달은 12월로 누적 PRDI가 107.8로 나

타났으며, 다음은 8월로 96.8의 누적값을 보였음

- 12월에는 000000의 고위직 인사가 여러 매체에 단신으로 실리면서 PRDI 평균이 높았음
- ‘삼성전자와 \*\*\* \*\* \* \*\*\*\*\* \*\* MOU 체결’ 보도자료는 삼성이라는 주요 대기업의 홍보와 연계가 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다뤘음
- 8월의 경우 ‘연말까지 \*\* \*\*\*\*\* \*\*원인 철저히 조사’ 보도자료에서 \*\* \*\*\*\*\* \*\* 조사계획을 발표하였는데,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음
-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공개 및, \*\*\*\*\*과 \*\* \*\*\*\*\* \*\*이 실차 실험에 합의한 내용들도 많은 언론이 다뤘음
- 전반적으로 사회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 000000이 공식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보도자료가 활발하게 인용되었음

## 2) 기사화율 낮은 보도자료

<표 5> 2018년 기사화율 저조 보도자료

날짜	보도자료 제목
2018-01-02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1-02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1-26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2-14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3-09	[보도해명자료] **** ** *
2018-04-17	[보도해명자료] **** ** *
2018-05-04	[보도해명자료] **** ** *
2018-05-10	*** **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5-15	** **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5-30	** **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7-04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07-06	[보도참고자료] **** ** *
2018-08-03	*** ** * ***** ** ** **
2018-10-05	[보도참고자료] ** ***** ** * ***** ** ** **
2018-10-11	** ***** ** * ***** ** ** **
2018-11-08	[보도참고자료] ** ***** ** * ***** ** ** 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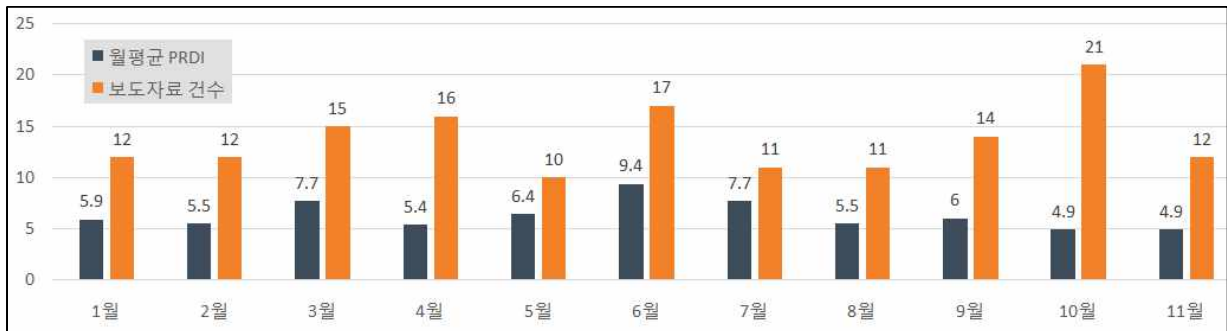
2018-11-09	[보도참고자료] ** ***** ** ** ***** **** ** **
2018-11-21	** ***** ** ** ***** **** ** **
2018-12-04	[보도참고자료] ** ***** ** ** ***** **** ** **
2018-12-17	** ***** ** ** ***** **** ** **

- 2017년과 마찬가지로 OO의 봉사활동 같은 사회책임활동에 대한 보도는 드물었음
- 전반적으로 ‘해명자료’와 ‘참고자료’가 기사화되는 경향이 드문데,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 언론이 정정보도에 인색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해명의 경우 문제에 대한 변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후속으로 다루지 않음

## 5. 2019년 보도자료 배포지수

### 1) 월별 통계

[그림 3] 2018년 보도자료 배포지수 월별 통계



- 2019년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, 대언론 홍보에 있어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달은 6월로 누적 PRDI가 159.8로 나타났음
  - 이 달에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계가 보도자료로 배포되면서 많은 언론들에 보도되었음
  - 대표적으로 ‘거꾸로 가는 이륜차 사고 매년 증가 추세’와 ‘음주운전으로 매일 1.2명 사망’의 보도자료가 비교적 높은 PRDI를 보였음
- 이러한 추세는 가장 높은 PRDI값을 보인 보도자료인 ‘전 좌석 안전띠 착용, 아

직 갈 길 멀었다’ 보도자료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남

- 이러한 통계들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보조하는 OO의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

## 2) 기사화율 낮은 보도자료

<표 6> 2018년 기사화율 저조 보도자료

날짜	보도자료 제목
2019-02-21	*** ** * ***** **** ** *
2019-06-26	*** ** * ***** **** ** *
2019-10-31	*** ** * ***** **** ** *
2019-11-07	*** ** * ***** **** ** *
2019-11-08	*** ** * ***** **** ** *

- 2019년의 경우 지난 2년에 비해서 기사화되지 않는 보도자료의 수가 줄어들었음
  -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보도자료가 더욱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, 보도자료가 거의 주요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  - 또한 이 매체들의 경우 저작권 비제휴 매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, 이를 다 포함할 경우 보도자료가 기사화 비율은 100%임
- 한편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보도자료의 특성을 볼 때에는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움
  - 일반적으로 설명회나 업무 협약, 시상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주요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는데, 이러한 부분은 보도자료 성과 하락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
  - 특히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관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보도자료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